

# 작은 목욕탕 확대·운영

### 임실군, 강진·운암·신평·청용·삼계 추가 건립

임실군이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는 작은 목욕탕을 확대·운영한다.

작은 목욕탕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편의시설로서 부담없는 가격과 지역민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공간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민선 6기가 들어선 이후 2014년 운암면, 2015년 강진면, 2016년 신평면 등 3개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 중이다.

연간 2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로간의 정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해 청용면과 삼계면에 작은목욕탕 4호점과 5호점을 각각 건립한다.

군은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접근성이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한 작은 목욕탕에 대한 주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작은 목욕탕을 추가로 짓고 있다.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은 면 소재지에 문화, 복지 등 중심기능을 확충,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거점공간을 육성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청용면 복지회관도 신축한다. 청용면 복지회관은 지난 1990년에 지어져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었다.

아울러 삼계면에도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과 더불어 2018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세부사업에 포함, 추진할 예정이다.

작은목욕탕은 남녀 격일제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은 1000원에, 65세 이상은 1500원, 일반주민은 3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작은목욕탕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목욕문화를 확산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소식과 정을 나누는 주민사랑방으로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성공 가능성 기대

### 순창군 유등면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의 필요성 인식

순창군 유등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4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주민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성공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등면은 기초생활거점육성추진위원회(위원장 임낙군)가 구성돼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가 커지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최근 유등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위원회는 면사무소에서 관내 이장단은 물론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유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유등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열악한 농촌기초생활 기반과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동안 면 지역의 성장거점이 확고히 마련되지 않은 유등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유등면은 삼진강이 흐르고 있어 경과조성과 지역성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과 유등면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두루두루 행복 유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는 복지회관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커뮤니티 공간, 건강관리실, 심해 건강 카페, 유등 주민자치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쉼터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역경관개선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유등면의 자원인 삼진강 어살 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자전거 두바퀴 쉼터도 조성한다. 삼진강 자전거길 주변의 경관도 개선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훈련 컨설팅을 통해 면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4월 최종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성료

순창군이 전국에서 모인 150개팀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순창군청 정구단은 대회 단체전 준우승까지 차지하며 순창군청정구단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 경경사를 맞았다.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

학부, 일반부, 동호인부로 나누어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단식·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순창군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실내코트, 제일고 정구장에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시·도팀간의 전력 분석을 위해 당초 예상인원을 훨씬 뛰어 넘는 선수단이 참가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순창지역 골목상권은 8일동안 1500

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진들로 붐볐고 지역상권에는 활기가 돌았다.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과 함께 순창군은 순창지역 선수단이 최고의 성적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군청정구단 단체전 준우승은 물론 이광삼 선수가 개인단식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성공으로 순창군은 관광비수기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은 물론 정구 메카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함으로써 또다른 대우포 대회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미세먼지 '나쁨' 예보

### 남원시보건소, 어린이·어르신·임산부·기저질환자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불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의사와 상의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 악화시 의사 진료 받기 등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끈 프로그램 진행

#### 내달부터 8개월간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2018년도 문화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끈 프로그램을 진행할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끈' 사업은 3월초 시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참여단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총 5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남원의 전문 오케스트라팀 양성과 정, 연극, 퓨전국악, 검무공연, 영상 콘텐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팀

들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을 남원 곳곳에서 4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끈 아가 데미를 통해 남원이 최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남원문화도시사무국(063-635-0014.0016)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 아리

### 순창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2018년도 순창향교 춘기 석전대제가 지난 26일 순창향교(전교 김갑용) 대성전에서 유림,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공자 탄생 2569년을 맞은 금번 춘기 석전대제는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이 초헌관을, 김택수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아헌관을, 김봉호 (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헌작(獻爵, 술잔을 바침)했다.

한편 순창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해 전통놀이, 전통혼례 등의 문화재 활용사업과 전통예절학교, 일요학교, 기로연 등 조선시대 전통 유교문화를 널리 체험하고, 알리는 활동과 함께 순창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1500그루 나무 심기

임실군은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해 27일 덕치면 가곡리 가곡마을 1ha 임야에 관백나무 1,500 그루를 심는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 날 행사에는 심민 군수, 문영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등 130여명이 참여해 미래의 풍요로운 숲을 위해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성장 등 사회여건 변화로 행복찬 삶과 사회복지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

제18회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화려한 봄벚꽃 잔치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벚꽃 축제는 순창군이 추진하는 경천 야간경관 사업 중 축제가 열리는 일부구간 조명이 가동되면서 벚꽃과 환상적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옥천골 벚꽃축제 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순창을 경천로 천변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